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2)(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의 경우에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모음 '니'의 발음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1]로 발음한다.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1]로, 조사 '의'는 [ㄱ]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겹받침의 발음
 -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2.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니'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이나 어말에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단,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3.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띄어쓰기
 - 각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표기의 기본 원칙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형태 음소적 원리

지문 분석

【 통일된 표기법 없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는다면, **문자 생활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문자로 적은 것을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함으로써 의사소통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 (): 어문 규범이 필요한 이유) 어문 규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바르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어문 규범의 개념)을 어문 규범이라 한다. 【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서는 **어떤 말을 쓰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표준어 사정의 문제**(표준어 규정 - 제1부 표준어 사정의 원칙, 제2부 표준 발음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발음을 표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맞춤법의 문제**(한글 맞춤법) 등에 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한다. 또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외래어 표기법)과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 우리말의 네 가지 어문 규범. **우리말의 네 가지 어문 규범 중에서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 어문 규범의 필요성과 국어 어문 규범 종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는 【 **각 규범**(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각 규정이 담고 있는 규칙의 원리와 실재를 배워 국어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어문 규범) 나아가 어문 규범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언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국어 생활의 성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 국어 규범에 기초한 정확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한 적절성을 갖추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 국어 규범을 공부하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다.

▶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의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에 주목해야 함.

1] 표준어 규정

[다가서기]

오른쪽에 제시한 사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말해 보고, 표준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친구들이 말한 이름: 귀우비개, 귀쏘시개, 귀쑤시개, 귀후비개, 귀파개
- 표준어: 귀이개

【 지리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지역 방언, 사회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 (): 방언의 종류) 이러한 방언 차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방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할 수 있는데, 【 표준어 규정은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표준어 규정의 내용, 1988년 공포)으로써 **이러한 문제**(방언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한다. 】【 (): 표준어 규정 제정의 이유) **전자**(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 사정)는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후자**(표준 발음 규정)는 제2부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다.

▶ 표준어 규정 제정 이유와 구성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를 사정하는 기본 원칙을 총칙에서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발음에 변화가 생겼거나**(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단순히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되어서**(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에 변화가 생긴 경우 실제 표준어 사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2절 모음

제3절 준말 제4절 단수 표준어

제5절 복수 표준어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제1절 고어 제2절 한자어
- 제3절 방언 제4절 단수 표준어
- 제5절 복수 표준어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제1장)에 제시된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사회 계층)이 **두루 쓰는**(보편성) **현대**(시대) **서울말**(지역)'을 표준어로 정한다]([]: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서울말은 모두 표준어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 모든 우리말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를 사정하게 되는데,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2장)의 예로는 '**강충강충**(모음조화를 지킴.)'과 '**으레**(한자어 '의례(依例)'에서 유래함.)'를 버리고 ['**강충강충**'(제2장 제8항)과 '**으레**'(제2장 제10항)를 표준어로 삼은 것]([]: 현재 널리 쓰이는 형태)을 들 수 있고,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3장)의 예로는 ['알타리무'와 '안절부절하다'를 버리고 '**총각무**'(제3장 제22항)와 '**안절부절못하다**'(제3장 제25항)를 표준어로 삼은 것]([]: 사용 빈도에 따라 선택함.)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한 단어만을 표준어로 정하지만 더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예**(복수 표준어의 개념. 제3장 26항)도 있다. 이를 복수 표준어라 하는데, ['가엽다-가연다, 고까-꼬까-때때, 송이-송이버섯, 신-신발, 여쭙다-여쭙다,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복수 표준어의 예시, **복수 표준어의 예시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강충강충 - 강충강충'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등이 그 예이다.

제2장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장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서울말이 표준어 사정의 기준이 된 것은 단지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이지 서울말이 다른 지역 말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다. → 표준어는 여러 방언에서 기준에 맞는 요소를 가려 뽑고 다듬은 말이기 때문에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말이 채택되기도 함. ㉠ 빈대떡-빈자떡

▶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른 분류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을 만든 이유) 발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표준어 규정 제2부의 내용.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그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준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 것**(표준어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이기 때문에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나, [모음의 경우 '**ㄴ**'의 발음이나 '**ㅈ**'와 '**ㅊ**'의 구별(제5항), 자음의 경우 음의 동화나 **겹받침의 발음**(제10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다.]([]: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 또한 [젊은 세대들은 '말[馬]'과 '말 : [言]'을 구별하여 말하고 듣지 못하는 등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 표준 발음에서 '전통성'이 조건이 된 이유)도 있다.

▶ 표준 발음법의 당위성과 예

제5항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네’는 [네]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제8항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ㄲ’, ‘ㄴㄹ’, ‘ㄹㄹ’,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며 국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바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평소에 늘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

[확인하기]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두 단어의 길이를 다르게 발음해 보고,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인지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보자.

- 훌륭한 조련사는 말[말]과 말[말:]을 나눌 수 있어.
- 눈[눈]에 눈[눈:]이 들어가서 눈물이 나.
- 늘어뜨린 발[발:]에 가려서 겨우 발[발]만 보였다.

② 한글 맞춤법

[다가서기]
 다음 빈칸에 올바른 발음을 써 보고, 실제 발화에서 다양하게 발음되는 것을 한글 맞춤법에서 **‘꽃’으로 고정해 적도록**(형태 음소적 원리를 채택함.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꽃[꼇]
- 꽃이[꼬치]
- 꽃나무[꼇나무]

위 단어들은 표기한 것이 실제의 발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원래 형태를 밝히어 적은 것들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한글 맞춤법의 개념)으로,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띄어쓰기의 원칙, 그리고 외래어 표기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제2장 ‘자모’에서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이름을 정해 놓았다. 이어지는 제3~6장에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한글 맞춤법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맞춤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 한글 맞춤법의 구성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은 총칙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음.)를 **소리대로**(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그 발음 그대로 적음.) 적되, **어법**(표준어이고 그 발음대로 적었더라도, 원래 형태에 맞아야 함.)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 방식**(근본 원칙 ① - 표음주의. **합성어와 파생어를 표기에 적용된 원칙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에서 음소적 원리의 예시로 ‘바가지, 지붕, 마개’가 출제**

되었습니다.)이 근본 원칙이 되고, 거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근본 원칙 ② - 표의주의)는 원칙이 덧붙여 있는 것이 된다. '구름', '나무', '하늘' 등이 소리대로 적어서 올바른 표기가 되는 예이다.

▶ 한글 맞춤법 기본 원칙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음소적 원리)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원칙을 덧붙인 이유. 실제 언어 사용 중에는 연음이나 음운 변동이 일어남.)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쓰이는 **환경**(음운 변동의 조건)에 따라 '꼐, 꼐나무, 꼬치'와 같이 다양하게 표기될 것인데, 이럴 때 **단어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아 독서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어법대로 적는 근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가 있다. **이런 문제**(의미 파악이 어려움.)를 해소하기 위해 소리대로 적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법을 고려하여 형태소나 단어의 본 모습을 찾아서 적도록 규정**(소리와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것. 형태 음소적 원리의 개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맞춤법의 원리를 형태 음소적 원리(形態音素的原理)라 한다. **[형태 음소적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데,**(어법에 맞도록 함을 덧붙인 장점) 여기에 더하여 끊어적기를 선택하면 더욱 효율적인 표기법이 된다.]([]: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태 음소적 원리와 끊어적기를 채택함.) 즉 '구르미, 머거서'와 같이 이어적기를 했을 때보다 '구름이, 먹어서'와 같이 끊어적기를 했을 때 **단어의 형태가 늘 일정하게 고정되는 장점**(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해 줌.)이 있어 독서 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한글 맞춤법 원리에 담긴 두 가지 표기 방법

[형태 음소적 원리]

기본형을 이루는 음을 흔히 '형태 음소'라고 함. 그래서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을 형태 음소 주의라고 부름. 즉 기본형을 이루는 음을 표기한다는 의미임.

[끊어적기]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표기법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예외: 조사)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어 생활에서의 띄어쓰기는 단어마다 띄어 쓰면 되고, 어떤 단위가 단어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 창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 국어 생활에서 띄어쓰기를 할 때 참고할 점)

▶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여러 개의 조사가 연속해서 결합하거나 조사와 같은 형태의 의존 명사 등이 사용된 예시를 제시하고, 적절한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확인하기]

다음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올바르게 띄어 써 보자.

작은아버지는 √큰 √집에 √사시고 √큰아버지는 √작은 √집에 √사신다. 그런데 √작은아버지의 √큰 √집을 √작은집이라 √하고 √큰아버지의 √작은 √집을 √큰집이라 √한다.

③ 외래어 표기법

[다가서기]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괄호에 들어갈 외래어의 표기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 (㉠ 커피숍) (coffee shop)

「명사」 주로 커피차를 팔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가게.

- ㉡ 커피샵 ㉢ 커피샷 ㉣ 커피숍 ㉤ 커피슌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외래어 표기법의 대상,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국어로 적기 위한 규정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를 한글로 적는 데 대한 규정이다. 하나의 단어를 ‘커피샵, 커피샷, 커피숍, 커피슌’ 등으로 **다양하게 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표기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 -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이유)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한 가지로 표기하도록 정한 것**(외래어에 대한 일관된 표기 원칙을 제공함.)이다.

▶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과 제정 이유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총 다섯 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자음 14개 모음 10개)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특정한 한 글자)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ㄷ이 없다는 점에 주의)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해당 언어에 따라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따로 적는 것이 불편하여 모두 거센소리로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이미 표기하던 방식)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은 **【 외래어 표기를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 [f, v, j, ŋ, ɔ, ʌ]처럼 국어에 없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하여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오직 **현용 한글 자모**(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원칙이다.

▶ 제1항에 대한 해설

제2항은 **외국어의 한 소리를 늘 일정한 한글에 대응시켜 적는다**(1음운 1기호)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fighting’을 ‘화이팅’, ‘film’을 ‘필름’이라 하여 **‘f’를 ‘ㅎ’과 ‘ㅍ’으로 다르게 적지 않고**(‘f’ 음운은 ‘ㅍ’(1 기호)로만 적음.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Fighting”은 “화이팅”으로 적지 않고 “파이팅”으로 적는 것처럼 음운 ‘f’는 ‘ㅍ’인 1기호로만 적는다는 의미이지. 하지만 하나의 기호가 한 음운만은 가리키지 않아.**)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파이팅’과 ‘필름’으로 적어 ‘f’를 일정하게 ‘ㅍ’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외국어로는 하나이던 소리가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서 둘 이상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가지 이상의 한글 자모를 대응시켜 적을 수도 있다. ㉠ 영어의 [t]: **테이블(table)**([t]가 ‘ㅌ’에 대응함.), **샷(shot)**([t]가 ‘ㅅ’에 대응함.)

▶ 제2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3항은 외래어 받침의 소리는 실제 소리를 반영하여 **일곱 개의 출발침**(‘ㄱ, ㄴ, ㄹ, ㅁ, ㅂ, ㅅ, ㅇ’)으로만 적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ㄷ’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데, ‘chocolate’을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hot line(핫라인), racket(라켓) 등.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ㄷ’을 받침의 발음에 쓰는 것과 차이가 있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이어질 때 [t]가 [s]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의 표기에 ‘ㄷ’이 아닌 ‘ㅅ’을 쓰는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제3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4항은 **파열음의 발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원래의 발음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규정의 간결성을 중시함. ‘빵’, ‘껌’ 등의 외래어는 이미 된소리로 굳어졌음을 고려하여 예외로 함.)는 원칙이다. ‘빠리’ 대신 ‘파리’, ‘빠스’ 대신 ‘버스’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 제4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5항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 표기가 **관용 발음**(이미 언중들 사이에서 굳어진 발음을 가리킴.)과 다른 경우에는 **관용을 존중한다**(제정된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는 것을 채택함.)는 원칙이다. 'camera'를 '캐머러'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이미 '카메라'로 굳어진 점을 존중하여 '카메라'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제5항에 대한 해설과 예

[확인하기]

다음의 잘못된 외래어 표기를 바르게 고쳐 보자.

외국어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digital	디지털	디지털
file	화일	파일
café	까페	카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Mozart - 모차르트, placard - 플래카드'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다가서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적어 보고, 한글과 로마자 사이의 대응을 확인해 보자.

이름	로마자 표기
홍길동	Hong Gildong
홍나리	Hong Nari(Hong Na-ri)
이채현	Lee Chaehyeon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개념)한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철자를 그대로 로마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글자가 표준 발음에 따라 발음된 것을 기준으로 적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함. 표기와 발음이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로마자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이전에 표기법에서 반달표(ˊ)와 어긋점(ˆ)과 같은 특수 부호를 사용하던 것을 없앴.), **같은 소리는 항상 하나의 로마자로 적는 것을 원칙**(1 음운 1 기호의 대응)을 따른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김치'는 'Gimchi'로 표기해야 하나, 'Taekwondo'와 마찬가지로 'Kimchi'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기이므로 현실적으로 둘 다 허용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전자법: 국어 단어를 글자대로 옮겨 적는 방법
- 전음법: 국어 단어를 발음 결과대로 옮겨 적는 방법 ※ 현 규정은 전음법을 따름.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개념과 원칙

로마자 표기법에서 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ㅇ	ㄹ
g,k	kk	k	d,t	tt	t	b,p	pp	p	j	jj	ch	s	ss	h	n	m	ng,r,l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ㅛ	ㅜ	ㅟ	ㅛ	ㅜ	ㅟ	ㅛ	ㅜ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 로마자와 국어 자모의 대응

- 자음 ‘ㄱ’, ‘ㄷ’, ‘ㅂ’의 표기: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의 표기: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고, ‘ㄹㄹ’은 ‘ll’로 적는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알약(allyak)’, ‘대관령(Daegwallyeong)’의 로마자 표기가 출제되었습니다.)**
- 이중 모음 ‘ㅛ’의 표기: 이중 모음 ‘ㅛ’는 ‘i’로 소리 나더라도 항상 ‘ui’로 적는다. ㉠ 광희문[광히문] → Gwanghuimun

그러나 **로마자**는 **우리말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로마자의 표기와 발음을 완벽히 대응시키기 어려운 이유)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음의 경우 **로마자**로 ‘ㄱ-ㄲ-ㅋ’과 같은 대립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데, **현 규정은 위의 원칙에 따라 ‘g, k-kk-k’로 적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로마자의 표기와 발음을 완벽히 대응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규칙 ①) 모음의 경우에도 우리말의 단모음은 10개인데 로마자의 모음은 5개뿐이어서 ‘ㅓ, ㅡ, ㅞ, ㅟ, ㅛ’ 등의 모음은 **하나의 로마자로는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두 개의 로마자를 합쳐서 대응**(로마자의 표기와 발음을 완벽히 대응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규칙 ②)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로마자 표기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우리 나름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염두할 점)

▶ 로마자의 표기와 발음의 완벽한 대응이 어려움.

[국어의 로마자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 규정과 관련하여 **집현전(Jiphyeonjeon)**의 사례가 출제되었습니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팔당 Paldang, 울산 Ulsan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Hong Bit-na)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적을 때에는 우리 식으로 성과 이름의 순서로 적고, 이름은 한 단어처럼 표기(한국 인명의 표기 방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경우 ‘**Hong(성) Gildong(이름)**’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임표(-)**를 쓴 ‘**Hong Gil-dong**’과 같은 표기도 허용한다.(그 외에도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의 앞에는 불임표를 넣어 표기함.)

▶ 한국 인명의 표기 방법

[확인하기]

다음 표지판에 들어갈 알맞은 로마자 표기를 써 보자.

서귀포	영동군
Seogwipo	Yeongdong-gun

학습 활동 분석 1

다음은 어문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 넣어 보자.

→ 어문 규범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활동

-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음/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의 받침 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 활동 분석 2

다음의 표준어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에 주어진 단어들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표준어 규정을 통해 언어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을 탐구하는 활동

제12항 '윗-'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윗-'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루는 사례를 제시하고, 각 항목의 예시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윗니, 윗입술, 윗사람 '아랫니, 아랫입술, 아랫사람'이 존재하므로 '윗-'을 쓰는 것이 맞다.
- 위쪽, 위층, 위턱 '아래쪽, 아래층, 아래턱'이 존재하므로, '윗-'이 아닌 '윗-'으로 하는데 거센소리 앞이므로 '위'로 쓰는 것이 맞다.
- 웃돈, 웃어른, 웃웃 '아랫돈, 아랫어른, 아래웃'과 같은 말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웃-'이 맞다.

학습 활동 분석 3

다음을 **표준 발음법**(학습 목표)에 따라 발음하여 보자.

- 넓다 넓게 넓고 넓지 [널따 널께 널꼬 널찌] → 표준 발음법 제10항

- 밟다 밟게 밟고 밟지 [밥 : 따 밥 : 깨 밥 : 꼬 밥 : 찌] → 표준 발음법 제10항
- 맑다 맑게 맑고 맑지 [막따 말게 말꼬 막찌] → 표준 발음법 제11항
- 놓다 놓소 놓는 놓아 [노타 노쏘 논는 노아] →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의 발음과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의 조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분석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ㄹ’, ‘ㅃ’,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ㅍ, ㅈ]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ㄹᄃᆞ, ㄹᄃᆞ)’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ㄹ), ㄷ, ㅈ(ㄴ)’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ㅈ, ㅊ’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 ‘ㅎ(ㄹᄃᆞ, ㄹᄃᆞ)’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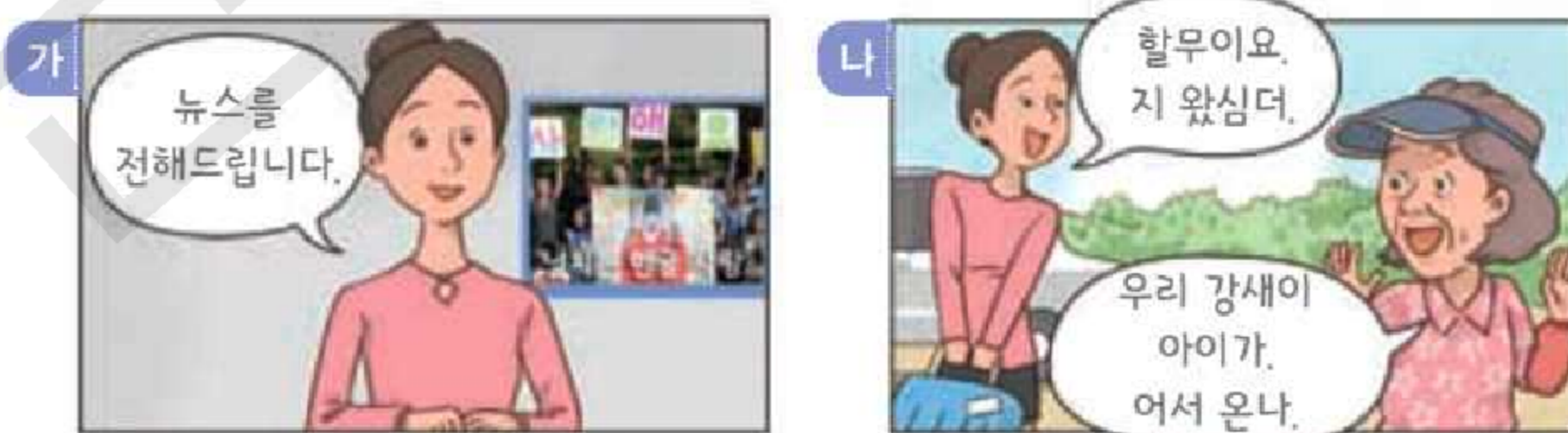
[붙임] ‘ㄹᄃᆞ, ㄹᄃᆞ’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4. ‘ㅎ(ㄹᄃᆞ, ㄹᄃ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학습 활동 분석 4

다음에서 같은 인물이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여 짝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 보자.

→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



화자는 (가)처럼 공식적인 자리인 뉴스 진행자일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나)에서처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표준어와 사투리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이다. 】([]: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투리와 표준어를 사용하면, 듣는 이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사투리와 표준어 사용 모두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어와 사투리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분석 5

다음 모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해 보자.

→ 잘못된 단어나 표기들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는 활동

(1) 평소에 어렵거나 혼란스러웠던 맞춤법의 예를 적어서 친구들과 비교한 다음,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자.

맞춤법의 예	난이도	개선	
		정답	근거
먹어도 {되 / 돼}.	상	돼	(제35항 붙임 2)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갓'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수{뚫/도}물	중	뚫	(제30항 1)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이고 [수돋물]로 발음되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남.
미시{요/오}	중	오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음.
{할께 / 할게}	중	할게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뒤꿈치 / 뒷꿈치}	중	뒤꿈치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2) 다음은 맞춤법 규정에 관하여 국립국어원에 많은 문의가 달린 것들이다. 이 질문들에 관한 답을 써 보며 바른 맞춤법 규정을 알아보자.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된 사전의 뜻풀이나 맞춤법 규정을 제시하고, 그 적용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에요'가 맞아요? '-에요'가 맞아요?

- 1.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 '-이에요', '-이어요'와 '-에요', '-어요'가 문법적으로 모두 가능함.
- 2.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을 때 '-이에요', '-이어요'의 형태만 붙음.
- 3. '아니다' 용언에는 '-이에요', '-이어요'가 결합하지 않고, 어간 '아니-' 뒤에 어미인 '-에요', '-어요'만 결합함.
- 4. '-에요'는 '-이에요'가 줄어든 형태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 '-에요'와 같이 쓰임.

• '-하다'는 띄어 써야 하나요? 붙여 써야 하나요?

→ '-하다'의 띄어쓰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사전에 오른 '-하다'는 붙여 쓰고, 사전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체언의 뜻풀이 상 동작성/서술성이 있으면 접사 '-하다'를 결합하여 쓸 수 있으므로 붙여 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다'를 앞말과 띄어 쓴다. '하다'가 독립적인 동사면 띄어 쓴다.

• '한번'과 '한 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며 붙여쓰기도 한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즉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혹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라는 뜻이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 '-로서'와 '-로써'의 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문맥에 따라 '(으)로써' 또는 '(으)로서'가 쓰이는데,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써'를 쓰고, 지위나 신분, 자격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서'를 쓴다.

• '-오'와 '-요'는 언제 쓰는 건가요?

→ '-오'는 어미로서,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어미 '-시-' 뒤에 붙는다. 한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

는 보조사로서,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쓰인다. 그래서 어미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시-' 뒤에 붙어 '하오체'로 문장을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하며, 보조사 '-요'는 종결형에 대하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 '안되다'와 '안 되다'는 뭐가 맞는 건가요?

→ '안되다'는 '잘되다'의 반의어로,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뜻이고,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표현이 '안 되다'이다.

학습 활동 분석 6

다음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별도의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 표시를 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외래어 표기의 규칙을 적용해 보는 활동

vision	→	비전(○)	비전()
pitcher	→	피쳐(○)	피쳐()

파찰음 표기에서는 '쇼, 자, 쥬, 저, 쇼, 차, 쉼, 처'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지, 비전, 피쳐, 쥬스'가 아니라 '조지, 비전, 피쳐, 주스'로 적어야 한다.

학습 활동 분석 7

다음 활동을 통하여 모둠별로 우리 반에서 많이 쓰는 외래어를 조사하여 이에 관한 순화어를 만들어 보자.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의 표기를 탐색해 보는 활동

(1) <보기>의 내용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작성해 보자.

<보기>

- ① 모둠별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의 목록을 작성한다.
- ② 외래어의 원어를 확인한다.
- ③ 외래어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한다.
- ④ 친구들과 의논해서 순화어를 만들어 본다.

①	②	③	④
뉘앙스	<프랑스어> nuance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	느낌, 말맛, 어감
씨지(CG)	<영어> Computer Graphics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	컴퓨터 영상 처리
알바(아르바이트)	<독일어> Arbeit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부업

(2) (1)의 결과를 참고하여 외래어 사용과 순화어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발표해 보자.

[외래어는 이미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 즉 의사소통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그 뜻을 정확히

모를 때 혹은 그 외래어를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외래어 사용의 장단점)

【 순화어는 우리말의 뜻을 조합하면 알 수 있는 말이라서 그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래어와 순화어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기존에 쓰던 의미 맥락과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말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 순화어 사용의 장단점)

(외래어와 그 순화어의 짝으로 적절한 것을 묻거나, 외래어와 순화어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분석 8

다음에 주어진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따라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로 써 보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백마	[뱅마](자음동화(비음화))	Baengma
종로	[종노](자음동화(비음화))	Jongno
신라	[실라](자음동화(유음화))	Silla
알약	[알낙]('ㄴ' 첨가) → [알락](유음화)	allyak
해돋이	[해도지](구개음화)	haedoji

(고유 명사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적고, 그와 관련된 로마자 표기 원칙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 분석 9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에서 사용된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아래의 활동을 해 보고, 우리의 국어 생활을 성찰해 보자.

→ 가상 공간과 현실에서 국어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성찰하는 활동

<보기>

- ①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표의 왼쪽에 옮겨 적는다.
- ②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이 되도록 점검하고 수정한다.
 - ㉠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르게 수정한다.
 - ㉡ 외래어, 속어, 줄임말 등을 바른 표현으로 순화한다.
 - ㉢ 문장 구성이나 호응 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한다.
- ③ 수정 전과 후를 다양한 관점(표현 효과, 소통의 효율성 등)에서 비교·평가한다.
- ④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어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본다.

수정 전 대화	수정 후 대화
오늘언제집감? <p style="text-align: right;">지금가고이씀</p>	오늘 언제 집에 가? <p style="text-align: right;">지금 가고 있어.</p>
개빠름. 웰케빨리? <p style="text-align: right;">오늘아빠생 파이써</p>	정말 빨리 가네. 왜 이렇게 빨리 가? <p style="text-align: right;">오늘 아빠 생일 파티 있어.</p>
응~ 즐파~빠2~	응~ 즐거운 파티되길 바라~ 안녕~!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주고받은 문자 언어는 [보통은 빠른 속도로, 압축된 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 띄어쓰기하지 않거나 축약된 표현 등을 이용한다.]([]: 통신 언어의 특성) [이러한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당사자가 서로 그 규칙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규칙을 잘 모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종 비속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언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통신 언어 사용의 문제점) 따라서 정제된 표현으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언어 규범을 지켜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의 대화 내용을 언어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2)(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통일된 표기법 없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는다면, 문자 생활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문자로 적은 것을 _____하거나 _____하게 해석함으로써 의사소통 당사자 간에 _____에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_____이 필요한 이유) 어문 규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바르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어문 규범의 개념)을 어문 규범이라 한다.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서는 **어떤 말을 쓰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표준어 사정의 문제** (표준어 규정 - 제1부 _____ 사정의 원칙, 제2부 _____),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발음을 표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맞춤법의 문제** (_____) 등에 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한다. 또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_____)과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_____)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말의 _____ 가지 어문 규범. **우리말의 네 가지 어문 규범 중에서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 _____의 필요성과 _____ 종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는 [**각 규범** (_____, _____, _____, _____)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각 규정이 담고 있는 규칙의 원리와 실체를 배워 국어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_____) 나아가 어문 규범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언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태도** (국어 생활의 _____)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국어 규범에 기초한 정확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한 적절성을 갖추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_____을 공부하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다.

▶ _____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의 _____, _____, _____에 주목해야 함.

1] 표준어 규정

[다가서기]

오른쪽에 제시한 사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말해 보고, 표준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친구들이 말한 이름: 귀우비개, 귀쏘시개, 귀쑤시개, 귀후비개, 귀파개
- 표준어: _____

[지리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지역 방언, 사회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_____의 종류) 이러한 방언 차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 (_____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할 수 있는데, [표준어 규정은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 (_____의 내용, 1988년 공포)으로써 **이러한 문제** (_____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한다.]([]: _____ 제정의 이유) **전자** (_____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_____ 사정)는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후자** (_____ 규정)는 제2부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다.

▶ _____ 제정 이유와 구성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를 사정하는 기본 원칙을 총칙에서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발음에 변화가 생겼거나** (제2장 _____에 따른 표준어 규정) **단순히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되어서** (제3장 _____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에 변화가 생긴 경우 실제 표준어 사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_____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2절 모음

제3절 준말 제4절 단수 표준어

제5절 복수 표준어

제3장 _____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절 한자어

제3절 방언 제4절 단수 표준어

제5절 복수 표준어

▶ 제1부 _____ 원칙

총칙(제_장)에 제시된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_____)이 **두루 쓰는**(_____) **현대**(_____) **서울말**(_____)을 표준어로 정한다]([] : _____의 대원칙.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서울말은 모두 표준어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 모든 우리말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를 사정하게 되는데,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_장)의 예로는 '**깡총깡총**(_____)를 지킴.'과 '**으레**(_____) '의례(依例)'에서 유래함.'를 버리고 ['**깡총깡총**'(제2장 제_항)과 '**으레**'(제2장 제_항)를 표준어로 삼은 것]([] : _____는 형태)을 들 수 있고,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_장)의 예로는 ['알타리무'와 '안절부절하다'를 버리고 '**총각무**'(제_장 제_항)와 '**안절부절못하다**'(제_장 제_항)를 표준어로 삼은 것]([] : _____에 따라 선택함.)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한 단어만을 표준어로 정하지만 더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예**(_____)의 개념. 제_장_항)도 있다. 이를 복수 표준어라 하는데, ['가엎다-가연다, 꼬까-꼬까-때때, 송이-송이버섯, 신-신발, 여쭙다-여쭙다,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 _____의 예시, **복수 표준어의 예시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깡총깡총 - 깡총깡총'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등이 그 예이다.

제2장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_____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장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_____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_____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_____으로 널리 쓰이면, _____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_____를 표준어로 삼는다.

서울말이 표준어 사정의 기준이 된 것은 단지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이지 서울말이 다른 지역 말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다. → 표준어는 여러 방언에서 기준에 맞는 요소를 가려 뽑고 다듬은 말이기 때문에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말이 채택되기도 함. ㉠ 빈대떡-빈자떡

▶ _____에 따른 분류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_____)에 대한 규정을 만든 이유) 발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 표준어 규정 제_부의 내용. **표준 발음과 관련해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그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준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 것**(_____)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이기 때문에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나, [모음의 경우 '**니**'의 발음이나 '**해**'와 '**개**'의 구별(제_항), 자음의 경우 음의 동화나 **겹받침의 발음**(제_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다.]([] : 국어의 _____ 내지는 _____에 따라 _____을 _____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 또한 [젊은 세대들은 '말[馬]'과 '말 :

[ㄹ]을 구별하여 말하고 듣지 못하는 등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 표준 발음에서 '_____ '이 조건이 된 이유)도 있다.

▶ 표준 발음법의 _____과 예

- 제5항 'ㅈ ㅉ ㅊ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은 _____으로 발음한다.
-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__, __, __]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__]로도 발음한다.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__]로 발음한다.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__]로, 조사 '의'는 [__]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제8항 받침소리로는 '__, __, __, __, __, __, __'의 _____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__, __, __]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ㄹ', 'ㄷ', 'ㄹ', 'ㅂ',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__, __, __, __]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_____을 활용하며 국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바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평소에 늘 국어 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

[확인하기]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두 단어의 길이를 다르게 발음해 보고,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인지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보자.

- 훌륭한 조련사는 말[____]과 말[____]을 나눌 수 있어.
- 눈[____]에 눈[____]이 들어가서 눈물이 나.
- 늘어뜨린 발[____]에 가려서 겨우 발[____]만 보였다.

② 한글 맞춤법

[다가서기]

다음 빈칸에 올바른 발음을 써 보고, 실제 발화에서 다양하게 발음되는 것을 한글 맞춤법에서 **'꽃'으로 고정해 적도록**(_____를 채택함.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꽃[____]
- 꽃이[____]
- 꽃나무[____]

위 단어들은 표기한 것이 _____과는 거리가 있지만, _____가 잘 드러나도록 원래 _____를 밝히어 적은 것들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_____의 개념)으로,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띄어쓰기의 원칙, 그리고 외래어 표기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제2장 '자모'에서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이름을 정해 놓았다. 이어지는 제3~6장에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_____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맞춤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 _____의 구성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은 총칙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_____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음.)를 **소리대로**(_____로 인정된 말은 그 _____ 그대로 적음.) 적되, **어법**(_____이고 그 _____대로 적었더라도, 원래 _____에 맞아야 함.)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_____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 방식**(근본 원칙 ① - _____, **합성어와 파생어를 표기에 적용된 원칙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에서 _____의 예시로 '바가지, 지붕, 마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근본 원칙이 되고, 거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근본 원칙 ② - _____)는 원칙이 덧붙여 있는 것이 된다. '구름', '나무', '하늘' 등이 소리대로 적어서 올바른 표기가 되는 예이다.

▶ 한글 맞춤법 기본 원칙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_____)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_____에 맞도록 함'이라는 원칙을 덧붙인 이유. 실제 언어 사용 중에는 _____이나 _____이 일어남.)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쓰이는 **환경**(_____의 조건)에 따라 '꼐, 꼐나무, 꼬치'와 같이 다양하게 표기될 것인데, 이럴 때 **단어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아 독서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_____대로 적는 근거, '_____ '는다는 원칙만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가 있다. **이런 문제**(_____이 어려움.)를 해소하기 위해 소리대로 적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법을 고려하여 형태소나 단어의 본 모습을 찾아서 적도록 규정**(_____와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_____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것. 형태 음소적 원리의 개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맞춤법의 원리를 형태 음소적 원리(形態音素的原理)라 한다. **[형태 음소적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데,**('_____에 맞도록 함'을 덧붙인 장점) 여기에 더하여 끊어적기를 선택하면 더욱 효율적인 표기법이 된다.]([]: _____을 고려하여 _____와 _____를 채택함.) 즉 '구름이, 머거서'와 같이 이어적기를 했을 때보다 '구름이, 먹어서'와 같이 끊어적기를 했을 때 **단어의 형태가 늘 일정하게 고정되는 장점**(_____을 파악하기 쉽도록 해 줌.)이 있어 독서 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_____에 담긴 두 가지 표기 방법

[형태 음소적 원리]

기본형을 이루는 음을 흔히 '_____'라고 함. 그래서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을 _____라고 부름. 즉 _____을 이루는 _____을 표기한다는 의미임.

[끊어적기]

여러 형태소가 _____될 때 그 각각을 _____이나 _____단위로 밝혀 적는 표기법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한다.'**(예외: _____)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어 생활에서의 띄어쓰기는 단어마다 띄어 쓰면 되고, 어떤 단위가 단어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_____의 검색 창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 국어 생활에서 _____를 할 때 참고할 점)

▶ _____의 기본 원칙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조사는 _____이지만 예외적으로 _____에 _____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여러 개의 조사가 연속해서 결합하거나 조사와 같은 형태의 의존 명사 등이 사용된 예시를 제시하고, 적절한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확인하기]

다음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올바르게 띄어 써 보자.

작은아버지는큰집에사시고큰아버지는작은집에사신다. 그런데작은아버지의큰집을작은집이라하고큰 아버지의작은집을큰집이라한다.

③ 외래어 표기법

[다가서기]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괄호에 들어갈 외래어의 표기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 () (coffee shop)

「명사」 주로 커피차를 팔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가게.

- ㉠ 커피샵 ㉡ 커피샷 ㉢ 커피숍 ㉣ 커피쑈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의 대상,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국어로 적기 위한 규정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를 한글로 적는 데 대한 규정이다. 하나의 단어를 ‘커피샵, 커피샷, 커피숍, 커피쑈’ 등으로 다양하게 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표기의)을 기하기 위함. -)의 제정 이유)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한 가지로 표기하도록 정한 것()에 대한)된 표기 원칙을 제공함.)이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총 다섯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자음 개 모음 개)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특정한)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이 없다는 점에 주의)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해당 언어에 따라)와)로 따로 적는 것이 불편하여 모두)로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이미)하던 방식)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은 [외래어 표기를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f, v, j, ŋ, o, ʌ]처럼 국어에)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하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오직 **현용 한글 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원칙이다.

▶ 제_항에 대한 해설

제2항은 **외국어의 한 소리를 늘 일정한 한글에 대응시켜 적는다**(1음운 1기호)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fighting’을 ‘화이팅’, ‘film’을 ‘필름’이라 하여 ‘f’를 ‘ㅎ’과 ‘ㅍ’으로 다르게 적지 않고(‘_’ 음운은 ‘_’()로만 적음.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Fighting”은 “화이팅”으로 적지 않고 ‘_’으로 적는 것처럼 음운 ‘_’는 ‘_’인)로만 적는다는 의미이지. 하지만 하나의 기호가)만은 가리키지 않아.’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파이팅’과 ‘필름’으로 적어 ‘f’를 일정하게 ‘ㅍ’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외국어로는 하나이던 소리가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서 둘 이상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가지 이상의 한글 자모를 대응시켜 적을 수도 있다. ㉠ 영어의 [t]: **테이블(table)**([]가 ‘_’에 대응함.), **샷(shot)**([]가 ‘_’에 대응함.)

▶ 제_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3항은 외래어 받침의 소리는 실제 소리를 반영하여 **일곱 개의 흘받침**(‘_’, ‘_’, ‘_’, ‘_’, ‘_’, ‘_’, ‘_’)으로만

적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ㄷ'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데, 'chocolate'을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 hot line(____), racket(____) 등.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ㄷ'을 받침의 발음에 쓰는 것과 차이가 있음. ____으로 시작하는 ____와 이어질 때 []가 []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의 표기에 'ㄷ'이 아닌 'ㅅ'을 쓰는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제_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4항은 **파열음의 발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____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규정의 ____을 중시함. 'ㄷ', 'ㄹ' 등의 외래어는 이미 된소리로 굳어졌음을 고려하여 예외로 함.)는 원칙이다. '빠리' 대신 '파리', '빠스' 대신 '버스'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 제4항에 대한 해설과 예

제5항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 표기가 **관용 발음**(이미 ____들 사이에서 ____ 발음을 가리킴.)과 다른 경우에는 **관용을 존중한다**(제정된 ____에 맞지 않더라도 이미 ____는 것을 채택함.)는 원칙이다. 'camera'를 '캐머러'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이미 '카메라'로 굳어진 점을 존중하여 '카메라'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제_항에 대한 해설과 예

[확인하기]

다음의 잘못된 외래어 표기를 바르게 고쳐 보자.

외국어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digital	디지털	_____
file	화일	_____
café	까페	_____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Mozart - _____, placard - _____'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다가서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적어 보고, 한글과 로마자 사이의 대응을 확인해 보자.

이름	로마자 표기
홍길동	_____
홍나리	_____ (_____)
이채현	_____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____의 개념)한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철자를 그대로 로마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글자가 ____에 따라 발음된 것을 기준으로 적음. ____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함. **표기와 발음이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로마자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이전에 표기법에서 반달표(ˆ)와 어긋점(˘)과 같은 ____를 사용하던 것을 없앴.), **같은 소리는 항상 하나의 로마자로 적는 것을 원칙**(____의 대응)을 따른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김치'는 'Gimchi'로 표기해야 하나, 'Taekwondo'와 마찬가지로 'Kimchi'가 _____이므로 현실적으로 둘 다 허용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_____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_____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전자법: 국어 단어를 _____ 옮겨 적는 방법
- 전음법: 국어 단어를 _____ 옮겨 적는 방법 ※ 현 규정은 _____을 따름.

▶ _____의 개념과 원칙

로마자 표기법에서 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	ㅇ	ㄴ	ㄹ	ㅇ	ㄹ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 로마자와 국어 자모의 대응

- 자음 'ㄱ', 'ㄷ', 'ㅂ'의 표기: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___', '___', '___'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___', '___', '___'로 적는다.
- 'ㄹ'의 표기: 'ㄹ'은 모음 앞에서는 '___'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___'로 적고, 'ㄹㄹ'은 '___'로 적는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알약(_____)', '대관령(_____)'의 로마자 표기가 출제되었습니다.)**
- 이중 모음 'ㅝ'의 표기: 이중 모음 'ㅝ'는 '___'로 소리 나더라도 항상 '___'로 적는다. ㉠ 광희문[광히문] → _____

그러나 로마자는 우리말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로마자의 _____와 _____을 완벽히 _____시키기 어려운 이유)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음의 경우 로마자로 'ㄱ-ㄲ-ㅋ'과 같은 대립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데, 현 규정은 위의 원칙에 따라 'g, k-kk-k'로 적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로마자의 _____와 _____을 완벽히 _____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규칙 ①) 모음의 경우에도 우리말의 단모음은 10개인데 로마자의 모음은 5개뿐이어서 'ㅏ, ㅑ, ㅓ, ㅕ, ㅗ' 등의 모음은 하나의 로마자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두 개의 로마자를 합쳐서 대응((로마자의 _____와 _____을 완벽히 _____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규칙 ②)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로마자 표기법의 _____)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우리 나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_____)

▶ 로마자의 표기와 발음의 완벽한 대응이 어려움.

[국어의 로마자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___'이 따를 때에는 '___'을 밝혀 적는 규정과 관련하여 집현전(_____)의 사례가 출제되었습니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_____로 적는다.
-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_____다.
- _____, _____, _____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_____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압구정 _____, 낙동강 _____, 팔당 _____, 울산 _____

• _____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 _____ (_____), 홍빛나 _____ (_____)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적을 때에는 우리 식으로 성과 이름의 순서로 적고, 이름은 한 단어처럼 표기(_____의 표기 방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경우 'Hong() Gildong()'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표(-)를 쓴 'Hong Gil-dong'과 같은 표기도 허용한다.**(그 외에도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_____와 '_____'의 앞에는 붙임표를 넣어 표기함.)

▶ 한국 인명의 표기 방법

[확인하기]

다음 표지판에 들어갈 알맞은 로마자 표기를 써 보자.

서귀포	영동군
_____	_____

학습 활동 확인 1

다음은 어문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넣어 보자.

→ 어문 규범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활동

- 표준어는 '_____ 있는 사람들이 _____ 쓰는 현대 _____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은 _____을/를 _____대로 적되, _____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의 받침 표기에는 '____, _____, _____, _____, _____'만을 쓴다.
-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에는 _____을/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_____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 활동 확인 2

다음의 표준어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에 주어진 단어들 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표준어 규정을 통해 언어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탐구하는 활동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루는 사례를 제시하고, 각 항목의 예시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윗니, 윗입술, 윗사람 '_____, _____, _____'이 존재하므로 '____-'을 쓰는 것이 맞다.
- 위쪽, 위층, 위턱 '_____, _____, _____'이 존재하므로, '____-'이 아닌 '____-'으로 하는데 _____ 앞이므로 '____-'로

쓰는 것이 맞다.

- 웃돈, 웃어른, 웃웃 ‘____, _____, _____’과 같은 말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__-’이 맞다.

학습 활동 확인 3

다음을 **표준 발음법**(학습 목표)에 따라 발음하여 보자.

- 넓다 넓게 넓고 넓지 [____] → 표준 발음법 제__항
- 밟다 밟게 밟고 밟지 [____:____:____:____:____] → 표준 발음법 제__항
- 맑다 맑게 맑고 맑지 [____] → 표준 발음법 제__항
- 놓다 놓소 놓는 놓아 [____] → 표준 발음법 제__항

(반침의 발음과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의 조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분석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____, ____]으로 발음한다.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____]으로 발음하고, ‘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____]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____, ____]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____]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ㄷ, ㄹ)’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____, ____]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ㄹ), ㄷ, ㅌ(ㄴ)’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____, ____]으로 발음한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____, ____’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 ‘ㅎ(ㄷ, ㄹ)’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____]으로 발음한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____]으로 발음한다.

[붙임] ‘ㄷ,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_____다.

4. ‘ㅎ(ㄷ,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_____다.

학습 활동 확인 4

다음에서 같은 인물이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여 짝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 보자.

→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



화자는 (가)처럼 _____적인 자리인 뉴스 진행자일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나)에서처럼 _____이 있는 자리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어와 사투리는 서로 _____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_____관계이다.]**([]: _____와 _____의 관계) 따라서 _____에 따라 사투리와 표준어를 사용하면, _____도 해소할 수 있고 사투리와 표준어 사용 모두에 _____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어와 사투리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확인 5

다음 모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해 보자.

→ 잘못된 단어나 표기들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는 활동

(1) 평소에 어렵거나 혼란스러웠던 맞춤법의 예를 적어서 친구들과 비교한 다음,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자.

맞춤법의 예	난이도	개선	
		정답	근거
먹어도 {되 / 돼}.	상	—	(제35항 붙임 2) '되' 뒤에 '-어, -었-'이 어울려 '____, ____'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수{뚝/도}물	중	—	(제30항 1) _____과 _____의 합성이고 [_____]로 발음되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____' 소리가 덧남.
미시{요/오}	중	—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____'는 '____'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____'로 적음.
{할께 / 할게}	중	_____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_____로 적는다.
{뒤꿈치 / 뒤통지}	중	_____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_____로 적는다.

(2) 다음은 맞춤법 규정에 관하여 국립국어원에 많은 문의가 달린 것들이다. 이 질문들에 관한 답을 써 보며 바른 맞춤법 규정을 알아보자.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된 사전의 뜻풀이나 맞춤법 규정을 제시하고, 그 적용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에요'가 맞아요? '-예요'가 맞아요?

- 1. 받침이 _____는 체언에 붙을 때 '-이예요', '-이어요'와 '-예요', '-어요'가 문법적으로 모두 가능함.
- 2. 받침이 _____는 체언에 붙을 때 '-이예요', '-이어요'의 형태만 붙음.
- 3. '_____' 용언에는 '-이예요', '-이어요'가 결합하지 않고, 어간 '아니-' 뒤에 어미인 '-예요', '-어요'만 결합함.
- 4. '-예요'는 '-_____'가 줄어든 형태로 받침이 _____는 체언에 붙을 때 '-예요'와 같이 쓰임.

• '-하다'는 띄어 써야 하나요? 붙여 써야 하나요?

→ '-하다'의 띄어쓰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사전에 오른 '-하다'는 _____고, 사전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체언의 뜻풀이 상 동작성/서술성이 있으면 _____ '-하다'를 결합하여 쓸 수 있으므로 _____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다'를 앞말과 _____다. '하다'가 독립적인 동사면 _____다.

• '한번'과 '한 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며 붙여쓰기도 한다. '번'이 _____나 일의 _____를 나타내면 '_____', '_____', '_____'과 같이 _____다. 즉 '한번'을 '_____', '_____'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_____'으로 _____다는 것이

다. 그러나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혹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라는 뜻이면 '____'으로 _____다.

• '-로서'와 '-로써'의 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문맥에 따라 '(으)로써' 또는 '(으)로서'가 쓰이는데, 어떤 일의 _____이나 _____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써'를 쓰고, _____나 _____, _____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서'를 쓴다.

• '-오'와 '-요'는 언제 쓰는 건가요?

→ '-오'는 _____로서, '이다'의 _____, 용언의 _____, 어미 '-__-' 뒤에 붙는다. 한편 '요'는 청자에게 _____의 뜻을 나타내는 _____로서, _____ 뒤에 붙어 쓰인다. 그래서 어미 _____이나 선어말 어미 '-__-' 뒤에 붙어 '_____'로 문장을 _____하게 하는 일을 하며, _____ '-__-'는 _____에 대하여 _____의 뜻을 나타내는 _____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 '안되다'와 '안 되다'는 뭐가 맞는 건가요?

→ '안되다'는 '_____'의 _____로,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뜻이고, 동사 '_____'를 _____하는 표현이 '_____'이다.

학습 활동 확인 6

다음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별도의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 표시를 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외래어 표기의 규칙을 적용해 보는 활동

vision	→	비전(○)	비전(○)
pitcher	→	피쳐(○)	피쳐(○)

_____ 표기에서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쵸지, 비전, 피쳐, 쥬스'가 아니라 '_____, _____, _____, _____'로 적어야 한다.

학습 활동 확인 7

다음 활동을 통하여 모둠별로 우리 반에서 많이 쓰는 외래어를 조사하여 이에 관한 순화어를 만들어 보자.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의 표기를 탐색해 보는 활동

(1) <보기>의 내용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작성해 보자.

<보기>

- ① 모둠별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의 목록을 작성한다.
- ② 외래어의 원어를 확인한다.
- ③ 외래어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한다.
- ④ 친구들과 의논해서 순화어를 만들어 본다.

①	②	③	④
_____	<프랑스어> nuance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	_____, _____, _____
_____	<영어> Computer Graphics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	_____
_____	<독일어> Arbeit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_____

(2) (1)의 결과를 참고하여 외래어 사용과 순화어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발표해 보자.

【 외래어는 이미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 즉 _____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그 _____을 정확히 모를 때 혹은 그 _____를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 _____를 짐작하기 어려워 오히려 _____에 _____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_____ 사용의 장단점)

【 순화어는 _____의 뜻을 _____하면 알 수 있는 말이어서 그 _____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래어와 순화어 사이에 _____의 차이가 있어서 기존에 쓰던 _____과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말이 지나치게 _____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 : _____ 사용의 장단점)

(외래어와 그 순화어의 짝으로 적절한 것을 묻거나, 외래어와 순화어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확인 8

다음에 주어진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따라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로 써 보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백마	[____](____(____))	_____
종로	[____](____(____))	_____
신라	[____](____(____))	_____
알약	____ → ____	_____
해돋이	____	_____

(고유 명사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적고, 그와 관련된 로마자 표기 원칙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 확인 9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에서 사용된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아래의 활동을 해 보고, 우리의 국어 생활을 성찰해 보자.

→ 가상 공간과 현실에서 국어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성찰하는 활동

<보기>

- ①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표의 왼쪽에 옮겨 적는다.
- ②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이 되도록 점검하고 수정한다.
 - ㉠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르게 수정한다.
 - ㉡ 외래어, 속어, 줄임말 등을 바른 표현으로 순화한다.
 - ㉢ 문장 구성이나 호응 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한다.
- ③ 수정 전과 후를 다양한 관점(표현 효과, 소통의 효율성 등)에서 비교·평가한다.
- ④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어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본다.

수정 전 대화	수정 후 대화
오늘언제집감? 지금가고이씀	_____
개빠름. 웰케빨리? 오늘아빠생 파이써	_____
응~ 즐파~빠2~	_____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주고받은 문자 언어는 【 보통은 _____로, _____된 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 _____하지 않거나 _____된 표현 등을 이용한다. 】([]: 통신 언어의 특성) 【 이러한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당사자가 서로 그 _____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_____을 잘 모르면 _____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종 _____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언어가 _____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 과도한 통신 언어 사용의 문제점) 따라서 _____된 표현으로, 서로 간에 _____가 없도록 _____을 지켜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의 대화 내용을 언어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2)(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하여, **지역 방언·사회 방언**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우리말의 어문 규범

-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총칙: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
- 표준어 규정: **우리말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를 사정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깡총깡총 (○) /깡총깡총 (×) • 으레 (○) /으레 (×) • 강남콩 (○) /강남콩 (×) • 아궁이 (○) /아궁지 (×)
------------------	--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각무 (○) /알타리무 (×) • 안절부절못하다 (○) /안절부절하다 (×) • 윷-니 (○) /윷-니 (×) • 윷-돈 (○) /윷-돈 (×)
----------------------	--

복수 표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엿다 - 가엿다 • 고까 - 꼬까 - 때때 • 송이 - 송이버섯 • 신 - 신발 • 여쭙다 - 여쭙다 • 옥수수 - 강냉이 • 우레 - 천둥 • 나귀 - 당나귀 • 딱전 - 딱정
--------	--

4.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것

모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의 발음에 관한 규정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한다. 예) 띄어쓰기 [띄어쓰기]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 [주의/주이], 우리의 [우리의/우리리에]
자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받침에 관한 규정 - '뱃-'은 자음 앞에서 [뱃]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예) 뱃다 [뱃 : 댕] 뱃소 [뱃 : 쏘] / 넙죽하다 [넙쭈카다] 넙둥글다 [넙똥글다]
모음의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의 긴소리와 짧은소리에 관한 규정 예) 눈 [眼] - 눈 : [눈], 말 [馬] - 말 : [말], 발 [足] - 발 : [발], 밤 [夜] - 밤 : [밤]

5.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단점

- 음소적 원리
 - 장점: **소리**대로 적으므로 **쓰기**에 편함.
 - 단점: 동일 단어라도 **발음 환경**에 따라 달리 적으므로 **독해**할 때 **불편함**.
- 형태 음소적 원리
 - 장점: 어법대로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의미 파악**이 쉬움.
 - 단점: **원형**을 적다 보니 **발음**과 괴리가 보이는 표기가 많아짐.

TEST 1단계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준□를 사정하고 그 □준 □음을 규정하여, □역 □언·□회 □언으로 인한 □사□통의 문제를 해□하기 위함.

2. 우리말의 어문 규범

- □준□ 규□
- □글 □춤□
- □래□ □기□
- □어□ 로□자 □기□

3.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총칙: 표준어는 □양 있는 사람들이 □루 쓰는 □대 서□말로 정함.
- 표준어 규정: 우□말 □어를 대상으로 □준□를 사정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총강총(□) /강총강총(□) • 으레(□) /으레(□) • 강남콩(□) /강남콩(□) • 아궁이(□) /아궁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각무(□) /알타리무(□) •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 윗-니(□) /윗-니(□) • 웃-돈(□) /윗-돈(□)
복수 표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다 - 가□다 • □까-□까 - □때 • □이 - □이□섯 • □ - □발 • 여□다 - 여□다 • 옥□수 - 강□이 • □레 - □둥 • □귀 - □□귀 • 탄□ - 탄□

4.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은 □어를 서로 □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통의 □란을 없애기 위해 □음의 □준을 정하여 놓은 것

모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ㄴ'의 발음에 관한 규정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예) 띄어쓰기[□어□기]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주□], 우리의[□리□/□리□]
자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받침에 관한 규정 - 'ㅃ-'은 □음 앞에서 [□]으로 발음하고,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으로 발음한다. 예) 뱃다[□ : 따] 뱃소[□ : 쏘] / 넓죽하다[□쭈카다] 넓둥글다[□똥글다]
모음의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의 □□리와 □은□리에 관한 규정 예) □[眼]-□ : [雪], □[馬]-□ : [言], □[足]-□ : [簾], □[夜]-□ : [栗]

5.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단점

- 음소적 원리
 - 장점: □리대로 적으므로 □기에 편함.
 - 단점: 동일 단어라도 □음 □경에 따라 달리 적으므로 □해할 때 □편함.
- 형태 음소적 원리
 - 장점: 어법대로 □형을 밝혀 적으므로 □미 □악이 쉬움.
 - 단점: □형을 적다 보니 □음과 괴리가 보이는 표기가 많아짐.

TEST 2단계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를 사정하고 그 □□ □□을 규정하여, □□ □□·□□ □□으로 인한 □□□□의 문제를 □□하기 위함.

2. 우리말의 어문 규범

- □□□ □□
- □□ □□□
- □□□ □□□
- □□□ □□□ □□□

3.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총칙: 표준어는 □□ 있는 사람들이 □□ 쓰는 □□ □□□로 정함.
- 표준어 규정: □□□ □□를 대상으로 □□□□를 사정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총강총(□) /강총강총(□) • 으레(□) /으레(□) • 강남콩(□) /강남콩(□) • 아궁이(□) /아궁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각무(□) /알타리무(□) •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 윷-니(□) /윷-니(□) • 윷-돈(□) /윷-돈(□)
복수 표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 • □□-□□□ • □□-□□

4.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 □□를 서로 □□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 □□을 없애기 위해 □□의 □□을 정하여 놓은 것

모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의 발음에 관한 규정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로 발음한다. 예) 띄어쓰기[□□□□]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 우리의[□□□/□□□]
자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받침에 관한 규정 - ‘뱀-’은 □□ 앞에서 [□]으로 발음하고,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으로 발음한다. 예) 뱀다[□:□] 뱀소[□:□] / 뽕죽하다[□□] 뽕동글다[□□]
모음의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의 □□□와 □□□□에 관한 규정 예) □[眼]-□[雪], □[馬]-□[言], □[足]-□[簾], □[夜]-□[栗]

5.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단점

- 음소적 원리
 - 장점: □□대로 적으므로 □□에 편함.
 - 단점: 동일 단어라도 □□ □□에 따라 달리 적으므로 □□할 때 □□함.
- 형태 음소적 원리
 - 장점: 어법대로 □□을 밝혀 적으므로 □□ □□이 쉬움.
 - 단점: □□을 적다 보니 □□과 괴리가 보이는 표기가 많아짐.

TEST 3단계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_____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_____를 사정하고 그 _____을 규정하여, _____으로 인한 _____의 문제를 _____하기 위함.

2. 우리말의 어문 규범

3.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총칙: 표준어는 _____ 있는 사람들이 _____ 쓰는 _____로 정함.
- 표준어 규정: _____를 대상으로 _____를 사정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총강총() / 강총강총() • 으레() / 으레() • 강남공() / 강남공() • 아궁이() / 아궁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각무() / 알타리무() • 안절부절못하다() / 안절부절하다() • 윗-니() / 웃-니() • 웃-돈() / 윗-돈()
복수 표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4.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_____를 서로 _____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_____의 _____을 없애기 위해 _____의 _____을 정하여 놓은 것	
모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의 발음에 관한 규정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로 발음한다. 예) 띄어쓰기[_____]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____/____], 우리의[____/____]
자음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받침에 관한 규정 - '뱀-'은 _____ 앞에서 []으로 발음하고,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으로 발음한다. 예) 뱀다[____:____] 뱀소[____:____] / 뱀죽하다[_____] 뱀둥글다[_____]
모음의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의 _____와 _____에 관한 규정 예) ____[眼]-____[雪], ____[馬]-____[言], ____[足]-____[簾], ____[夜]-____[栗]

5.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소적 원리 - 장점: _____대로 적으므로 _____에 편함. - 단점: 동일 단어라도 _____에 따라 달리 적으므로 _____할 때 _____함. • 형태 음소적 원리 - 장점: 어법대로 _____을 밝혀 적으므로 _____이 쉬움. - 단점: _____을 적다 보니 _____과 괴리가 보이는 표기가 많아짐.
--